

정의로운 전쟁론에 대한 소고*

-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를 중심으로

박도현 (숭실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1.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렌즈
2. 교회와 국가의 관계
3. 정의 실현의 길

III. 기독교 현실주의 렌즈로 본 정의로운 전쟁

1. 정의로운 전쟁이 무엇인가?
2. 정의로운 전쟁을 주장하는 근거와 이유
3. 정의로운 전쟁의 가능성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2.06>

* 본 논문은 2016년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ABSTRACT •

A Study of Just-war Theory based on Reinhold Niebuhr's Christian
Realism

Park, Do Hyun (Lecturer, Soongsil Univ.)

This paper examines the just-war theory through the lens of Christian realism in Reinhold Niebuhr. He stands mainstream in Christian social ethics, and he presents a thoroughly realism-based theory. It seems particularly useful in refuting pacifists' arguments. His Christian realism begins with his understanding of humans. It was considered that the ethics of perfectionism could not be implemented like Jesus due to sin. Among the various fields of social ethics, especially the issue of war and peace begins here. Pacifists are in a position to follow the Bible, but Niebuhr saw it as impossible in nature. A nation made of sinful humans is even more impossible. Niebuhr criticizes pacifism for being justifiable but unrealistic. Thus, Niebuhr argues that in order to achieve justice, a just war as a last mean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countries.

Key words: Reinhold Niebuhr, Christian Realism, Just war, Constantianism, Pacifism

I. 들어가는 말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Christian realism)는 그의 윤리학 전반을 보는 렌즈이다. 우리가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듯이, 니버에게 기독교 현실주의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고, 세상에 많은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정식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윤리학자는 어떤 렌즈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재세례파의 이론적 지주인 요더(John H. Yoder)는 성서적 현실주의(Biblical realism)를 주장한다. 성서적 현실주의는 성서의 완전성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자는 주장이다. 이 성서적 현실주의라는 렌즈로 전쟁을 보면, 자연스럽게 평화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반면에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렌즈는 정의로운 전쟁을 지지하게 된다. 이처럼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윤리적 해결 방식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니버의 전쟁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현실주의를 먼저 이해하여야 그가 왜 정의로운 전쟁을 지지하고 주장하는지를 알게 된다. ‘전쟁이나? 평화나?’라는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도 지구 어디에선가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에게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기독교 입장에서 전쟁을 대하는 태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거룩한 전쟁(holy war), 정의로운 전쟁(just war), 평화주의(pacifism)가 있다.¹⁾ 기독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정의로운 전쟁의 흐름이 있다. 초기 기독교는 평화주의를 지향하였으나 로마의 공인과 국교가 되면서 변모하게 되어 정의로운 전쟁을 주장하게 된다. 그 이후 정의로운 전쟁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중세 시대를 거쳐 마틴 루터와 같은 중

1) 전쟁의 태도에 대해서는 줄저, 『정의로운 전쟁과 평화주의』(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1) 23~31 참조.

교개혁가와 현대에 와서 니버로 이어지면서 주류적 입장으로 이어져 왔다. 또 하나의 흐름은 초기의 평화주의를 계속 이어서 중세 수도원 운동으로 이어지고 종교 개혁기에 재세례파(anabaptist)로 이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우리가 오늘 니버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현재 나라들마다 갈등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견해가 설득력도 있고 호소력도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주장이며, 동시에 세계의 갈등을 너무 소박하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주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전쟁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정의로운 전쟁을 왜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국가에서 전쟁과 평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II.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1.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렌즈

기독교 현실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를 살펴야 한다. 기독교에서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 기독교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측면을 일방적으로 강조한다. 이 경우는 인간의 죄인됨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임을 소홀히 여긴다. 인간을 죄인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에 대해서 니버는 전통적 기독교는 인간의 현실적 도덕 성취의 ‘약간 더하고’(a little more) ‘약간 덜한’(a little less)

상대적 차이를 무시해 버린다고 지적하였다.

둘째로 진보적 기독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적극적 창조의 측면만을 강조한다. 전통적 기독교의 입장과는 반대로 인간의 죄인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외면한다. 이는 인간의 긍정성을 강조하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계몽주의자들과 같은 주장을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간과한 결과이다.

셋째로 신정통주의적 기독교는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인간이 이론 모든 성취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발견한다.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유한성과 제한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함으로써 진보주의적 기독교의 함정인 유토피아주의를 극복한다. 동시에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입장을 강조하는 견해도 극복한다. 니버는 이런 신정통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런 이해가 기독교 현실주의의 신학적 기반이다.²⁾

니버의 인간 이해는 그의 사회윤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이다. 그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성서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특히 그는 『인간 본성의 운명』 7장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논하고 있다. 성서는 죄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의해 정의한다. 그는 “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것”³⁾이라고 말한다. 죄는 인간으로부터 생긴 문제라고 본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 결국 니버는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갖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관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목회 현장에서부터이다.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처음으로 디트로이트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임용되기 전까지 13년간의 목회 경

2) 고범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4) pp.251-254.

3)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오희천 옮김, 『인간의 본성과 운명』1, (서울:종문화사, 2013), 287.

힘을 하게 된다. 그 당시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었으나 아직 산업사회의 초기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그대로 간직하여 노동자들의 삶은 어려웠다. 그는 목회하면서 비로서 현실과 마주치고, 그 현실의 모습에서 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모습과 인간의 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인간의 원죄에 대한 깊은 자각은 개신교의 근본적인 신학 사상으로 니버는 목회를 통해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 그런 깨달음이 나중에 그의 사회윤리 방법의 기초인 기독교 현실주의(christian realism)의 바탕이 된다.⁴⁾ 이 지점이 중요한데, 그의 기독교 윤리학이 현실에 기반하게 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후에 니버 스스로 개인윤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윤리에 깊은 관심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개인윤리가 도덕 행위자의 합리적인 호소나 설득을 통해 도덕적으로 행위 하게 한다면, 사회윤리는 힘이나 권력을 통해 정책이나 제도로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는 자기 이익이나 권력의 요인을 고려하는데 반해 이상주의는 당위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현실주의는 상황들을 고려함으로 어떤 일관된 이념이나 이상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에 반해 이상주의는 완전주의적인 모습을 가진다. 즉 이상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긍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신뢰함으로 노력으로 유토피아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근대 이성주의자들의 모습과 일치한다. 니버에게 완전주의란 이성을 통해 가장 고귀한 이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독교 내에서 완전주의의 모습은 요더(John H. Yoder)와 같은 재세례파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현실에 타협하기보다

4)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4) 송용섭 옮김, 『길들여진 냉소주의자의 노트』 (서울·동연, 2013)

성서의 완전한 실천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⁵⁾

그러나 니버는 사회문제를 이상주의나 완전주의 차원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생각들에 반대한다. 그는 현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반드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현실주의자이다. 니버가 보기에 이러한 현실주의자들 가운데 서구의 최초의 현실주의자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⁶⁾ 그는 신의 도성에서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대비함으로 인간이 가진 이중적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사는 지상의 나라는 늘 불안하고 전쟁의 위협 속에 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예수의 명령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수 없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인간은 정의를 위하여 세상 정치를 용인해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삶이다. 즉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니버가 살던 20세기 초 미국에는 사회에 대한 낙관주의 견해가 팽배하였다. 그 당시 미국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었으며, 이른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고, 교회 지도자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또한 기대를 걸고 있던 때이다.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러한 낙관주의가 팽배하였으며, 그 당시 자유주의 교회는 사랑의 법을 주장하며 사랑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잘 보여주는 책이 니버의 『기독교윤리학』이다. 그는 이 책 6장에서 자유주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다. “정통 교회는 정치에 있어서 사랑의 법의 당위성을 상실했고 현대 교회는 무조건 당위

5) 니버와 요더의 사회윤리학과 전쟁에 대한 태도는 줄저, 『정의로운 전쟁과 평화주의』(서울:에영커뮤니케이션, 2011)을 참조.

6) 같은 책, 120.

성을 강조함으로 산상수훈의 원리들이 정치와 경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병든 사회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정통교회는 기독교 수용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여 사랑의 법이 현실에 적용되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산상수훈의 예수의 가르침이 가지는 당위성만을 주장함으로 비현실적인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장을 시작한다. 그러한 자유주의 기독교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사랑의 법을 무조건 정치에 적용시키려는 자유주의 교회의 노력은 한 마디로 후회와 희망의 연속이었다. 교회는 모든 인간은 사랑의 법대로 살아야 하고 인간 못지 않게 국가도 그 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반면, 국가나 개인은 모두 그렇게 하지 못해왔고 그럼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주장하다가 불행히도, 교회조차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교회는 더욱 간절하게 노력하면서, 이 법의 실현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끊임없이 바라라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도덕적 의지에 대한 호소와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도덕적 의지를 지지하려는 노력은 종교적으로 허용된 만큼 정치적으로는 비현실적이다. 자유주의 교회가 도덕적으로 조금만 덜 이상적이고 좀 더 현실적이었다면, 정치 문제에 대한 접근이 것처럼 어리석고 무모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의 해결책은 인간의 집단적인 행위와 개인 생활의 도덕적 이상 사이의 좁힐 수 없는 차이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었다.”⁸⁾

니버는 그 당시 자유주의가 내세운 사랑의 법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는 오히려 이런 낙관주의가 예수의 사랑의

7) Reinhold Niebuhr,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노진준 역, 『기독교 윤리학』 (서울:은성, 1998) p.153.

8) 같은 책, 178-9.

법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게 할 뿐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이런 이상주의적인 낙관론을 넘어 현실주의에서 그의 기독교 사회윤리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 과제였다. 기독교 현실주의는 일반적 현실주의와는 달리 성서적 신앙이 밝혀주는 인간의 자아성에 대한 독자적 진리에 의한 정신적 통찰, 즉 인간의 초월성과 그것의 부패로 인한 악의 근원 및 그로 인한 공동체의 권력의 현실들에 대한 통찰이 더해진 현실주의이다.⁹⁾ 이러한 정의를 통해 성서적인 절대적인 세계와 상대주의적인 현실 세계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니버에게 있어서 결국 현실주의의 귀결은 사랑과 정의의 문제로 간다. 니버는 “사랑과 정의의 관계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정치적, 경제적 현실 속에서 근사적으로 실현하여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근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¹⁰⁾이라고 본다. 사랑과 정의가 변증법적이며,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실현 불가능한 사랑을 근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의이다. 이 정의의 실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2. 니버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복잡 미묘하다. 특히 교회가 국가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할 때 대두되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처럼 정교일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정교분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립되기까지 많은 역사적 사건과 배경이 있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니버는 『문명은 종교를 필요로 하는가?』(Does Civilization Need Religion?)에서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과 거기서 파생하는 많은

9) 고범서,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 (서울: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p.912.

10) 같은 책, 924.

비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하면서, 모든 인간 집단들 가운데 가장 비윤리적인 집단이 국가¹¹⁾라고 말한다. 그는 국가는 비윤리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집단 이기주의’(collective egoism) 때문이라고 보았다. 니버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윤리와 사회윤리를 혼동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해 말한다.

“오늘날의 문화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집단 이기주의가 갖는 힘과 범위, 그리고 지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 간의 관계를 순전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에 의해 확립하는 일은 비록 쉽지는 않을지라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즉 그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와 필요성을 비교 검토하여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¹²⁾

니버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것의 강력함을 알지 못해서 사회나 국가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과 비도덕만이 있게 된다고 한다. 개인으로서는 예수의 가르침처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 줄 수도 있지만, 이익과 이익이 대립하는 집단이나 국가 간의 갈등에서는 개인 간의 사랑이나 양보와 같은 것은 성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집단이나 국가 간에는 사랑이 아닌 정치적인 결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치적이다 함은 각 집단이 가지는 힘의 비율이라고 한다. 즉 정치적 개념은 힘의 우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 국제관계

11) Reinhold Niebuhr, *Does Civilization Need Religion?*, (N.Y:Macmillian Co, 1927). p.130.

12)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이한우 역,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서울:문예출판사, 2006) p.23.

임은 분명하다.

오늘날도 잘 보라. 국제회의에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나라별로 이익에 따라 나뉘고, 힘에 따라 순서가 결정되는 것은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다. 집단이나 국가는 각기 상이한 이해와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요구되는 집단들 간의 정의로운 관계의 수립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설득과 조정으로 불가능하며, 힘 또는 강제력을 사용하게 된다. 국가는 인간 집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회적 구속력을 가진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런 국가는 종교적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 종교적 이상은 사랑의 보편주의를 말하지만, 많은 이해관계 속에 있는 국가는 집단적 이기주의로 선을 향한 경향보다는 자연주의적 욕망이나 이기심에 따라 갈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니버의 주장은 니버가 활동하던 당시에 서구는 두 번의 세계 대전과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서로 얽혀 빚어내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 것이 그의 책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개인과 국가를 구별하면서 이것을 혼동하여 도덕적 이상주의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는 지극히 미미한 것이어서, 국민의 행동 통일은 기껏해야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때때로 전국을 휘몰아치는 대중의 맹목적 감정과 열병에 의해 성취될 수 있을 뿐이다. 바꾸어 말해서 국가는 합리적인 정신과 지성보다는 폭력과 감정에 의해 유지되는 결사체라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자기 극복의 정신 없이는 자기비판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엄정한 자기 비판 없이는 윤리적 행위가 있을 수 없음을 감안해 볼 때, 국가의 태도가 윤리적 성격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¹³⁾

국가가 비윤리적인 것은 결국 공동체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지배층의 이기심이고, 그 이기심을 대중에게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로 포장하여 강요한다. 개인은 그런 국가를 합리성이나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 감정이나 정서에 의지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는 국민에게 애국심을 호소하게 되는데, 실상 애국심으로 나타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은 모든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원천을 상실하게 한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독일의 나찌 당이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전쟁의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개인과 국가간의 맹목적 충성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경험을 한니버는 국가는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니버는 이런 이유로 개인들의 사회적 동정심의 확산만으로는 인류의 사회문제를 해결해보려는 희망은 결국 헛된 망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개인의 도덕성은 국가로 전이되면서 비도덕적인 존재로 되기에 종교적 윤리로는 국가를 도덕적으로 만들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한 가지는 니버의 눈이 소중파에 있지 않고, 사회나 국가와 같은 보다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종교적 윤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의 관심이 교회에 있지 않고 국가에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살고 활동하던 시대의 미국은 기독교가 곧 미국이기 때문이었다. 즉 그 당시 미국이 세계의 제국이었고, 그 제국의 정신적 지주는 기독교였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지는 않았으나, 거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서 기독교가 지배적이었다. 로마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교회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니버의 관심도 교회보다는 국가적 차원으로 시야를 넓혔고, 그의 사회윤리도 국가를 대상

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아야 한다.

3. 정의 실현의 길

이제 문제는 이 국가나 세상에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이다. 세상은 집단과 집단의 이익이 상충되는 곳이다. 이런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정치적 방법이나 정치적 정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그 정치적 방법은 정치적 권력(political power)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정치적 권력을 다른 말로 ‘강제력’이라고 한다. 집단과 집단 간의 다툼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뒷받침된 권력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나 국가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power)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힘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니버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개인윤리의 접근방식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정치적 정책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니버가 현실에서 정의를 이루려고 했던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의의 “근사적 접근”(approximating approach)이다. 사회 정의의 실현은 도덕적 설득이나 호소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권력 혹은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성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니버는 ‘힘’(power)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니버는 힘의 균형이 정의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한다.

“모든 정치적 정의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무정부적 상태를 최선의 가능한 힘의 균형에 의한 어떤 종류의 알맞은 질서 속으로 강요함으로써 성취된다. 그러한 균형은 일단 성취되면 정착되고, 윤색되고, 심지어는 때로는 순수한 도덕적 고려에 의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힘의 균형을 기초로서 가지고 있지 않은 정의의 설계는 역사 속에 존재한 일이 없었다.”¹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집단적 이기주의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을 균형과 질서를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힘의 균형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정부와 국민 간의,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일방적인 것이 아닌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정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니버는 보고 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은 힘을 바탕으로 균형을 이루어 정의를 가장 근사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니버는 힘을 인정할 뿐 아니라 힘의 사용 곧 폭력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III. 기독교 현실주의의 렌즈로 본 정의로운 전쟁

1. 정의로운 전쟁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는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렌즈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 렌즈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자. 기독교 역사에서 늘 문제가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는 전쟁이나 평화주의나 둘 중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실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이란 개념은 초대교회가 로마의 종교로 인정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즉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A.D 313년) 이후로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회는 원래 소종파로 모였고, 제국의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지속적인 박해로 국가에 대해서 일부러 관계를 멀리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교회를 공인한 것이며, 교회를 국가가 공인했다는 것은 교회에게 새로운 숙제들을 제공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기독교는 이제 소수 종파로 모여 예배하

14)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N.Y:Charles Scribners Sons, 1940), p.104.

는 공동체에서 로마 제국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감당해야만 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국가를 기독교화한 만큼 교회도 세속화되었다.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 국가가 성직자들에 대한 공공 의무를 면제해주고, 교회의 기부금 수수와 재산 축적이 가능해졌다.¹⁵⁾

교회는 제국의 종교로써 걸맞게 힘으로 유지되던 제국을 위해 전쟁의 당위성과 정의로움을 알려 주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모습을 콘스탄틴 황제의 이름을 빌려 콘스탄티니즘(Constantinianism)¹⁶⁾라고 한다. 제국의 국교가 되기 이전의 교회는 평화주의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교회가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평화주의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제국의 평화(Pax Rome)는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유지되는 것이기에, 전쟁은 필연적이었다. 즉 제국 수호를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과 전쟁을 통한 승리 외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기기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전쟁에 정의로움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덕적 판단을 하게 한 것이 정의로운 전쟁론(just war theory)이다.

정의로운 전쟁론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 인물은 암부로우스(Ambrose)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였다. 암부로우스는 제국의 방어가 곧 신앙의 방어라는 주장으로 전쟁의 정의로움을 주장하였다. 암부로우스는 야만족의 침략에 대해 싸우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말로 전쟁에 참전할 것을 권하였다. 다만 암부로우스는 성직자들에 대해서는 육체의 의무보다는 영혼의 의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기에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암부로우스의 견해를 더욱

15) Philip Schaff, 이길상 옮김, 『교회사전집』3권,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96-106 을 참조하라.

16) 출처, 『정의로운 전쟁과 평화주의』, pp.133-137 참조.

발전시켜 정의로운 전쟁의 이론을 제공한 인물을 아우구스티누스이다. 그는 교리적으로 정의로운 전쟁을 체계화함으로 로마의 국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였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을 인정하는 근거를 세상적인 차원에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했다. 즉 전쟁의 목적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달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¹⁷⁾ 그는 평화를 두 구역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지상의 평화이고 다른 하나는 천상의 평화이다. 지상의 평화는 깨어질 수 있는 불안한 것이지만, 천상의 평화는 영원하고 깨어질 수 없는 안식과 행복이 있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에는 이 세상은 불안하고 언제든지 평화가 깨어질 수 있는 곳이다. 그가 보기에 세상은 선의 결핍으로 인하여 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윤리적인 잣대를 댈 수 있는 것이다. 즉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하다. 그에게 이 세상에 가득 찬 악과의 전쟁은 신의 자비를 실현하는 일이며, 동시에 신의 정의를 수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생각은 기독교의 근본 이념 가운데 하나이다.

콘스탄틴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기독교는 전쟁에 대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 진일보한 면을 보였다. 그러나 중세의 십자군 전쟁에서 보듯이 상대방은 악으로 자신을 선으로 놓고 보는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원래의 의도에 벗어나서 악용되었다. 중세 이후 종교개혁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성립하였는데,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가톨릭의 부정과 잘못을 수정하여 개혁교회의 모델을 만들었다. 루터는 두 왕국론을 주장하였다. 이 세상에는 두 왕국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왕국이다. 그리고

17) 이석우 지음, 『아우구스티누스』 (서울:민음사, 1995), 189.

하나님의 왕국에는 교회가 속하고, 국가는 세상의 왕국에 속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앙이 지배하지만, 세상의 왕국에는 외적인 것, 즉 토지와 육체와 집을 지배한다. 세상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전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루터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쟁의 목적은 평화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정의로운 전쟁을 주장하는 근거와 이유

기독교 전통에서 정의로운 전쟁을 지지한 현대 기독교 윤리학자의 대표는 니버이다. 이제 그가 정의로운 전쟁을 주장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국가 간의 가장 첨예한 갈등의 결과가 전쟁이다. 전쟁은 국가 간의 갈등 해결이 다른 방법, 외교나 협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는 모든 전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 즉 정의를 근사적으로 세우는 전쟁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전쟁 역시 추구하는 목적은 평화이다. 진정한 평화는 정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의롭지 못한 집단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니버의 사회윤리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도 기독교 주류의 윤리학일 뿐 아니라 미국의 정책 수립의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니버의 주장은 국가간의 이익이 첨예하고도 복잡하고, 거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예수의 윤리를 근사적으로 실현하는 최선이 방법이다.

전쟁과 평화 문제만 보았을 때, 니버 역시 많은 숙고를 했다. 그는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은 예수의 윤리를 제도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예수의 종교, 도덕적인 사고를 현실적인 사회 도덕적, 혹은 심지어 정치,

도덕적 제도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의 도덕적 통찰력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가령 자유주의 기독교가 무저항의 교리를 단순히 폭력을 금하는 명령으로만 정의할 때, 모든 저항, 충돌, 압제 안에 죄악된 요소가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는 차원을 더 이상 제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기 주장에서 비롯되는 악으로 가득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보다는 도덕적 만족만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폭력적인 형태의 압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의 폭력성은 망각한 채 모든 폭력의 형태를 비기독교적이라 정죄하는 사회 기관들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교회가 주창한 기독교 기독교 평화주의(Christian Pacifism)의 원동력이다.”¹⁸⁾

예수의 윤리를 한 사회나 국가의 제도나 체계로 이해하여 평화주의를 실천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예수의 윤리를 실천하고 있다는 만족이나 도덕적 우월감을 줄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자행되는 폭력이나 악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니버의 이러한 평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예수의 윤리를 인간의 세상에서 실천할 수 없는 이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니버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가 1, 2차 세계 대전을 모두 겪었다는 데 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의 참상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결과 20년대와 30년대 초반까지는 평화주의적인 태도를 가졌지만, 1930년 이후 그의 평화주의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니버는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루즈벨트 진영에 참여하였다. 그 당시 미국의 사회당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유럽 전쟁에 불개입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들 가운데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는 국가 간의 전쟁과 평화를 논하

18) 라인홀트 니버, 『기독교 윤리학』 50~51.

면서 세계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뿐이라고 본다.

“평화는 힘에 의해 획득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힘을 가진 계급이 한 나라를 조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사회를 조직하는 것도 바로 힘을 가진 나라들이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평화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 평화는 상충하는 이해 관계의 조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달성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서로의 권리에 대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에 의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는 너무 약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강대국에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라가 강대국에 도전할 만큼 강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¹⁹⁾

니버가 평화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이유를 잘 볼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 평화는 힘의 불균형에 의한 것일 뿐이다. 언젠가 다시 힘을 얻게 되면 평화는 깨어진다고 본다. 이는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이 항복에 사인했지만, 그 항복과 굴종은 다시 히틀러 시대에 힘을 얻게 되면서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처럼 국가 사이에 진정한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기에 전쟁을 인정하고 다만 정의로운 전쟁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니버는 주장한다.

그 당시 평화주의를 주장했던 자유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니버는 미국 기독교계가 평화주의에 기초한 중립적 입장을 버리고 나치즘을 타도하는 전쟁이 참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니버는 먼저 기독교와 평화주의 관계를 보면서 현대 기독교 평화주의는 기독교 완전주의(perfectionism)의 단순한 변형²⁰⁾이라고 보았다. 이는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기초하고

19) 라인홀트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pp.46~47.

20) Reinhold Niebuhr, “Why the Christian Church is not Pacifist”, 29-30.

있는 것이 결국 완전주의 곧 예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 완전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기독교의 전쟁에 대한 태도는 평화주의냐 아니면 전쟁을 인정하느냐의 결단이었고, 교회의 정의로운 전쟁은 그 둘 사이의 어느 지점에 놓여 있다. 이것이 정의의 근사적 실현이며, 정의로운 전쟁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전쟁 앞에 정의로운 이라는 단어를 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니버는 이 둘 중에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폭력 곧 정의로운 전쟁을 인정하였고, 그 근거는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렌즈이다.

3. 정의로운 전쟁의 가능성

니버의 정의로운 전쟁의 가능성은 국가가 얼마나 정의에 충실한 제도나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만일 국가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제도나 체계를 갖추게 되면, 그 국가가 시행하는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가 국가에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국가 간의 분쟁을 정의롭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힘이 필요하고, 그 정당한 힘을 사용하는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는 이기적일 수 있기에 제도나 힘에 의해 정의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국가에게 선과 악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렌트가 말한 것과 같이 정치가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면, 국가에 대해 옳고 그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국가가 정당한 방식으로 권력을 가지고, 제도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부정의와 싸우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의로운 전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적인 시각에 대해 비판을 하게 되는데, 니버 말고 기독교 윤리학자 가운데 정의로운

전쟁을 지지하는 폴 램지(Paul Ramsey)는 보다 현실적인 각도에서 평화주의를 비판한다.

“평화주의는 거대한 전쟁 역지가 지금도 진행 중임을 가르쳐준다. 사람들에게 무죄한 자의 피흘림과 어떤 사람의 피 사이에 구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평화주의는 그의 신조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을 부패시킨다. 그들은 많은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부도덕함’을 피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제한이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평화주의는 사람들에게 전쟁에서의 죽이는 것과 살인 사이에, 목적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도덕적 차이점이 없다고 믿게 한다. 병사가 단지 ‘살인 면허를 가진 살인자들’이고 살인자는 단지 살인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정말로 진지하게 믿게 한다는 것이 놀랍다.”²¹⁾

램지에 따르면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부도덕한 사람들인 것처럼 만든다는 것이다. 즉 군인들이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과 보통 때에 강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평화주의자들은 동일한 살인이라고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램지는 이런 평화주의자들의 논리는 일반적인 강도 살인과 전투 중의 살인을 도덕적으로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램지의 입장에서 살인이라고 다 같은 살인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주의자들은 “모든 살인은 악하다” 또는 “모든 살인은 도덕적으로 그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주의자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램지 역시 평화주의자는 현실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버 역시 램지처럼 일반적인 평화와 국가 간의 평화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집단은 생존의 뿌리를 두면서 팽창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21) Paul Ramsey, *The Just War*, (Bos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146.

있다. 그런 국가 간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평화는 힘에 의해 획득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힘을 가진 계급이 한 나라를 조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사회를 조직하는 것도 바로 힘을 가진 나라들이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평화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 평화는 상충하는 이해 관계의 조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달성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서로의 권리에 대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에 의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는 너무 약하다고 느껴지지 때문에 강대국에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라가 강대국에 도전할 만큼 강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²²⁾

이러한 주장은 니버가 현실의 국가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1차 세계 대전 후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에게 가혹한 것이었다. 독일은 힘이 없어 수용하고 인내하게 되었고, 그 이후 유럽은 평화를 찾았다. 그러나 그것은 니버의 말대로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평화였다. 독일이 히틀러 정권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군비증강이 이루어지자 평화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다시 2차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었다. 그뿐일까?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각 나라들의 군비증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 중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군비증강 뿐 아니라 전쟁의 위험성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평화주의를 말하는 것은 당위성은 있으나 현실성은 전혀 없는 주장이다.

니버의 현실주의 렌즈로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인 선택은 니버의 정의로운 전쟁론이 맞다고 본다. 본래의 정의로운 전쟁은 방어적이고, 엄격하게 무력을 제한하는 제한적인 전쟁의 성격

22)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pp.46~47.

이 강하다. 그러나 이런 정의로운 전쟁이 적극적으로 해석되거나 주장하면서 적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선수를 치는 것도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정의로운 전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늘 불안한 이유가 정의로운 전쟁 요건의 오용이 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시 정부가 수행한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카니스탄 전쟁이 과연 정의로운 전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정의로운 전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역사에서 정의로운 전쟁은 늘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왔다. 각자가 자신들이 수행하는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주장은 반복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것이 결국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한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전쟁을 주장하는 것은 당위적 차원에서이다. 현실주의자들에게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현실주의자들에게 정의라는 윤리적 판단을 덧붙임으로, 적어도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쟁은, 전쟁에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현실주의자와 ‘모든 전쟁은 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비폭력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이상적 평화주의자들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제3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길이 좁지만, 전쟁에도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말함으로 비극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도덕성을 호소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 전쟁에도 최소한의 도덕적 정의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IV. 나가는 말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인터뷰

에서 니버에게 받은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니버의 저서를 읽으면서 이 세상에 악이 도사리고 있으며 고난과 역경이 만연하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겸손하고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냉소주의나 나태함의 구실로 삼아서도 안됩니다. 니버는 이러한 노력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 그럼에도 순진한 이상주의에서 냉혹한 현실주의로 손쉽게 태도를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²³⁾

오바마는 니버의 윤리를 잘 알고 있다. 니버의 윤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단순한 조화가 아니다. 이상을 바라보면서도 현실을 떠나지 않는 그러면서 가기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한지를 따지지 않았다. 다만 니버가 왜 정의로운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그의 기독교 현실주의 입장에서 따져보았다. 사람은 그 시대를 벗어나기 어렵다. 니버는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에 대한 깊은 숙고와 연구를 한 결과가 기독교 현실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상적인 목표가 아닌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전쟁이나 폭력 역시 정의를 위해서라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사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기독교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볼 수 있다. 니버에게 미국은 현대의 로마 제국이고, 기독교가 지배하는 미국에서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콘스탄티누스주의(Constantinianism)라고 보인다. 그 이후 기독교는 중세의 십자군 전

23) 리처드 헤리스, 안태진 옮김, 『라인홀드 니버』 (서울:비아, 2016) 7~8.

쟁 역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하였고, 근대 국가 형성 이후에는 각 국가 별로 일으키는 전쟁을 대부분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류는 정의로운 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니버는 기독교 주류의 입장을 가장 잘 이론적으로 정립한 윤리학자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 Reinhold Niebuhr, *Does Civilization Need Religion?*, (N.Y:Macmillian Co, 1927)
- _____,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Y:Hopper & Brothers Publishers, 1935) 노진준 역, 『기독교 윤리학』(서울:은성, 1998)
- _____,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N.Y:Charles Scribners Sons, 1940)
- _____,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Y:Charles Scribner's Sons, 1941) 이한우 역,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서울:문예출판사, 2006)
- _____,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s*, (N.Y:Charles Scribners Sons, 1953)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N.Y:Charles Scribners Sons, 1996)I, 오희천 옮김, 『인간의 본성과 운명』1, (서울:종문화사, 2013)
- _____,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4) 송용섭 옮김, 『길들여진 냉소주의자의 노트』 (서울:동연, 2013)
- _____, “Why the Christian Church is not Pacifist”, Richard B. Miller, Editor, *War in the Twentieth Centur*,(Louisville: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 Paul Ramsey, *The Just War*, (Bos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 Philip Schaff, 이길상 옮김, 『교회사전집 3권』,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 리처드 해리스, 안태진 옮김, 『라인홀드 니버』, 서울:비아, 2016
- 고범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4
- 고범서,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 서울: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 박도현, 『정의로운 전쟁과 평화주의』, 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2011
- 이석우, 『아우구스티누스』, 서울:민음사, 1995
- 이상원, 『라인홀드 니버』, 서울:살림, 2006

논문투고일: 2022년 02월 27일

심사개시일: 2022년 03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04월 01일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은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렌즈로 정의로운 전쟁론이 무엇 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니버는 기독교 사회윤리학에서 주류에 서 있으며, 그는 철저하게 현실에 바탕을 둔 이론을 제시한다. 특히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을 논박 하는 데 유용해 보인다.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의 시작은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예수처럼 완전주의 윤리를 시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회윤리 여러 분야 가운데 특히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한다. 평화주의자들은 성서를 따르지는 입장이고, 니버는 인간의 본질상 평화주의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죄된 인간들이 모여 만든 국가는 평화주의를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없다. 평화주의는 모두에게 마땅히 원하는 당위이지만, 현실에서 실행하기에는 이상적이어서 불가능하다. 현실에서는 니버의 렌즈가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보여진다. 니버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의로운 전쟁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라인홀드 니버, 기독교 현실주의, 정의로운 전쟁, 콘스탄틴주의, 평화주의

